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772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4월 10일 (음력 2월 23일) 화요일

주가 사상 첫 1500 돌파

코스피 1,501.06 기록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500선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11면〉

9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로 전날보다 16.91포인트(1.14%) 오른 1,501.06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밟은 것은 지난 1989년 3월31일(1,003.31) 처음으로 1,000선을 넘은지 18년만이며 2006년 1월 4일 1,400선을 넘어선지 15개월만이다.

코스닥지수도 8일 연속 상승해 전날보다 4.54포인트(0.68%) 오른 670.54로 마쳐 11개월여 만에 6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유가증권의 시가총액은 737조7천80억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으며 거래량도 4조1천63억원에 달했다./장필수기자 bungy@

2012 엑스포 여수로

2012 엑스포 유치 신청지 대한민국 여수를 직접 둘러볼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이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색동옷으로 단장한 여수 어린이들이 공항 환영식장에서 실사단원들에게 꽃다발을 선사하고 있다. 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FTA 직격탄 전남경제 'J프로젝트'가 타개책

정부 '신산업거점 육성' 전폭 지원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희생양'이 된 전남지역의 활로 모색을 위해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개발이 가장 낙후된 상태로 농축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은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전제로 타결된 한미FTA에 따라 연간 최대 3천370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등 지역현안사업 활성화로 한미FTA에 따른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의 지원은 극히 미온적이다.

J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예정부지인 해남군 산이면·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3천만평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대두됐지만 소유자인 농림부는 전남도가 아닌 개발사업자와 감정평가 가격으로 유상 양수양도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간척지 양도양수는 50~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안을 추진하라"고 농림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F1대회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은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123만평에 들어설 F1경주장 단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간척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관리결정은 권한을 갖고 있는 전남지사가 알아서 하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는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위해 오는 7월 F1경주장을 반드시 착공해야 하지만 농림부는 당장 필요한 경주장 부지 56만평에 대해서도 J프로젝트 부지 전체의 양도양수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시 진구 미군부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폐쇄 후 이전부지 16만여 평에 들어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은 정부가 토지의 70%를 무상으로 지원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盧대통령-원자바오 中총리 오늘 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원 총리의 방한은 한중 수교 15주년과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지만, 답보 중인 북핵문제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중국의 경제개방 가속화 의지 등 실질적 현안에 대한 양측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

"Welcome to Yeosu"

BIE실사단 어제 입국…내일 여수 방문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첫 관문인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현지 실사가 9일부터 시작됐다.

캐나다 출신의 까르맹 실뱅(47·여) BIE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BIE 실사단은 이날 오후 2시 45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실사단이 도착한 인천공항에는 여수시민, 재경 여수향우회원, 전남도·여수시 공무원 등 1천여명의 환영단이 실사단을 뜨겁게 맞았으며 실사단은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시했다.

서울 하얏트 호텔에 여장을 푼 실사단은 오후 6시 30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환담하며 한국의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확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황폐화된 지구의 환경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여수지역은 람사습지보호구역에 등재된 세계적인 습지와 많은 섬을 보유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라고 "여수 인근에는 광양항을 비롯하여 항공, 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사단에게 "한국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사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한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 관련 부처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각계인사들로부터 2012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방한 이틀째인 10일 실사단은 오전 8시 30분부터 하얏트호텔에서 여수박람회 명칭과 주제, 의미 등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한다. 이어 11일 오후에는 여수 현지를 방문해 12일까지 박람회 개최 예정부지와 주변여건 등을 둘러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BIE실사단 오늘의 일정

▲10일 오전 8시30분 프리젠테이션(하얏트호텔) ▲오전 11시 국회의장 면담(국회의장실) ▲낮 12시10분 경제단체장 오찬(롯데호텔) ▲오후 2시30분 프리젠테이션(하얏트호텔)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4월 3일~12일 접수◀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0-0541·222-8111

천혜의 천하제일 담양다이너스티CC 직원 모집

■ 관 리 부
- 인사 · 총무, 전산, 회계, 프론트.예약 0명
- 자격 : 유경험자 우대

■ 시설 및 코스관리
- 전기, 기계, 카트정비, 그린키퍼보 0명
- 자격 : 자격증 소지자

■ 식 음 료
- 홀 지배인, 웨이터, 웨이츄레스 0명
- 주방장, 조리사, 찬모, 찬모보 0명
- 자격 : 유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해당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 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 출 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 79번지
담양 다이너스티 CC 인력개발팀
※메일접수 : jssonggood@paran.com(사진부착)
◆ 제출기한 : 2007년 4월 15일
◆ 문 의 : 담양 다이너스티 CC 인력개발팀 061)380-7554(인력개발팀장)
(조건 충족시 담양출신 우대)